부 록 Ⅳ. 다층소득보장 추정 관련 기초통계 분석

■ 소득수준별 공·사적 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80.8%로 나타남.

○ 동 결과는 특정시점(2011년)에서의 가입현황이므로 생애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수급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전체 생애근로가능기간에서 10년 이상 가입시 수급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특정 가입시점의 가입비율보다 수급시점의 수급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부록 표 Ⅳ-1〉 국민연금 가입 및 비가입 현황(60세 미만 가구주 기준)

공적연금가입유형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비가입	빈도	210	93	62	54	35	454
	비율	26.2	11.6	7.7	6.7	4.4	11.3
		(46.3)	(20.5)	(13.7)	(11.9)	(7.7)	(100.0)
국민연금	빈도	587	668	697	639	646	3,237
	비율	73.2	83.3	86.9	79.8	80.6	80.8
		(18.1)	(20.6)	(21.5)	(19.7)	(20.0)	(100.0)
직역연금	빈도	5	41	43	108	120	317
	비율	0.6	5.1	5.4	13.5	15.0	7.9
		(1.6)	(12.9)	(13.6)	(34.1)	(37.9)	(100.0)
전체	빈도	802	802	802	801	801	4,00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분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가처분소득+자산환산액)을 기준으로 구분.
2) ( )안은 가로 비율임.
3) 빈도는 표본가중치를 활용한 표본가중 빈도임.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7차조사, 2011년 기준) 원시자료 분석.

■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기준으로 경제상황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 가구의 월경상소득은 452만 원이었으며, 가처분소득으로는 410만 원이었음.

○ 가구의 월 소비지출액은 353만 원이었고 가구 월가처분소득에서 월소비지출을 뺀 가구 월흑자액은 57만 원으로 조사됨.

〈부록 표 Ⅳ-2〉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기초통계(60세 미만 가구주 가구 기준)

(단위: 만 원)

소득인정액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월경상소득	159	288	391	529	880	452
월가처분소득	147	267	360	477	787	410
월소비지출	179	265	330	413	569	353
월흑자액	-33	2	31	63	218	57
가구수	587	668	697	639	646	3,237

주: 1) 분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가처분소득+자산환산액)을 기준으로 구분.
2) 빈도는 표본가중치를 활용한 표본가중 빈도임.
3)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60세 미만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함.
4) 월흑자액 = 월가처분소득 - 월소비지출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7차조사, 2011년 기준) 원시자료 분석.

■ 사적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 6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퇴직연금(퇴직금 포함), 개인연금 가입비율은 각각 40.5%, 20.5%로 나타났으며,

○ 전체 가구 대비 사적연금(퇴직금 포함) 가입비율은 30.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퇴직연금(퇴직금 포함), 개인연금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연금(퇴직금 포함)에 비해 개인연금이 저소득층 가입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됨.

〈부록 표 Ⅳ-3〉 사적연금 가입 현황(60세 미만 가구주 기준)

(단위: 명, %)

사적연금 가입유형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퇴직연금 (퇴직금포함)	159 (19.9)	298 (37.2)	383 (47.6)	345 (43.1)	440 (54.9)	1,625 (40.5)
개인연금	51 (6.4)	73 (9.1)	159 (19.8)	180 (22.5)	360 (44.9)	823 (20.5)
전체	210 (13.1)	371 (23.1)	542 (33.7)	525 (32.8)	800 (49.9)	2,448 (30.5)

주: 1) 분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가처분소득+자산환산액)을 기준으로 구분.
2) ( ) 안은 해당분위별 가입비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7차조사, 2011년 기준) 원시자료 분석.

■ 소득수준별 공 · 사적 연금 수급현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급에 대한 분석은 노인대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가구주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음.

○ 공적연금 수급은 637가구로 나타났으나, 퇴직연금(퇴직금) 수급가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인연금은 17가구가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Ⅳ-4〉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공 · 사적연금 수급현황

(단위: 명, %)

공 · 사연금 수급유형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공적연금	34 (13.1%)	75 (29.1%)	147 (57.0%)	172 (66.7%)	210 (81.1%)	638 (49.4%)
개인연금	0 (0.0%)	0 (0.0%)	4 (1.6%)	3 (1.2%)	9 (3.5%)	16 (1.2%)
전체	34 (6.6%)	75 (14.5%)	151 (29.3%)	175 (33.9%)	219 (42.4%)	654 (25.3%)

주: 1) 분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가처분소득+자산환산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를 기준으로 한 분류임.
2) ( ) 안은 해당분위별 가입비율임.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7차조사, 2011년 기준) 원시자료 분석.

■ 따라서 공적연금 수급자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나, 사적연금에 대한 분석은 표본 수의 문제로 추정에 의해 분석할 수밖에 없음.

○ 국민연금의 경우도 제도 도입이 일천하여 수급자 수가 많지 않아 현재의 연금수급자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노인대상 공 · 사적 연금 수급에 대한 분석은 추정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은퇴 전 근로자가구의 소득을 기초로 이들 가구가 노인가구가 될 때까지 발생할 공 · 사적 연금을 추정하여 분석하였음.